

# 김영록 전남지사 '광양항 활성화'...광양시민과 비대면 대화



## 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국비 지원 추진 광양 마린베이·벤처기업 연수원 지원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광양시를 방문 비대면 도민과의 대화를 갖고 "광양항 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국비를 지원받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양 마린베이 조성(사업비 400억원), 남해안남중권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건립(400억원) 등 광양시가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축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양시를 시작으로 22개 시·군의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직접 주민과 소통하면서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비대면 도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최소한의 인원만 행사장에 참석하고, 주민 180명이 비대면 영상을 통해 참여한 이날 광양시 도민과의 대화는 김기홍 전남도 정책기획관의 도정보고,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

의 현안보고, 김 지사와 현장·영상 참여자 간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도민과의 대화에서 백윤식 광양경제활성화본부 회장은 광양항과 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저터널과 진출입도로 3.8km에 3118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지난해부터 5억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타가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균형 요소가 더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나광진 광양시 예총 회장은 광양읍

에 들어서 오는 22일 개관하는 도립미술관 활성화 방안을 물었다.  
김 지사는 "전국적인 미술 애호가들이 찾은 기획 전시를 계속 하면서, 소장품도 자산이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명칭 변경 목소리에 대해 공감한다.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영상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화훼재배농가, 여행업체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다음 도민과의 대화는 오는 17일 무안, 25일 곡성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양=심종섭기자

## 순천시, 농촌형 힐링텃밭 반려과수 분양 치유농업 확대...도시민 대상 선착순 분양신청 완료

순천시는 치유농업 확대와 코로나 블루극복을 위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형 힐링텃밭·반려과수를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선착순으로 분양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도시민을 벗어나 자연과 농촌의 치유자원과 영농활동을 연계한 교류형 치유프로그램인 농촌형 힐링텃밭을 운영한다.  
농촌형 힐링텃밭은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장소로 텃밭·반려과수 가꾸기는 물론

농장과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또한 도시민, 마을 농장주 간 멘토-멘토를 지정하여 농작물 재배기술 및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교감·소통하는 교류형 치유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분양 예정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2곳(주암 용오름마을, 낙안 꽃마차마을), 치유·교육농장 4곳(승주 산골관광농원, 송광 덕동원, 서면 모이리, 미답골, 낙안 배꽃피는 마을), 일반체험농장 2곳(송광 두메유기농원, 팔발 부농장)이다.  
총 9개 농촌 마을·농장에서 45개 가

족(단체)을 대상으로 분양하며, 힐링텃밭은 1구획당 10㎡내외의 규모로 분양료는 3만원이고, 반려과수(베)는 1구획당 10만원이다.  
분양신청은 순천시 또는 순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순천시 농업정책과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061-749-8705)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힐링텃밭 운영으로 일상에 지친 도시민에게 정신적·신체적 치유공간을 제공하여 찾아오고 싶은 농촌마을과 치유농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며 "도시와 농촌 간 인적·문화교류를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순천형 치유농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여수시, 소라면 죽림지역에 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500㎡ 규모 돌봄·체험·문화·복합 플랫폼 구축

여수시가 소라면 죽림지구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소라면 죽림리 산들공원에 어린이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연계, 돌봄, 체험, 문화, 복합 플랫폼으로 특화된 어린이도서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지난 9일 시청 상강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원,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연구용역을 맡은 (사)한울경제연구소(대표 홍석운)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돌봄, 체험, 문화, 복합 플랫폼으로 특화된 어린이도서관을 제안했다.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따른 창의적 인성을 갖도록 과학·오감체험과 독서, 소통이라는 건립 방향을 기본으로 어린이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연계



하는 생활SOC사업의 복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물 기본계획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500㎡의 규모로, VR,AR 등 오감체험을 할 수 있는 과학체험공간과 영·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이야기방 등 연령별 자유이용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부모와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카페, 다목적실 등 자유로운 공간구성도 제

시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어린이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가 복합화되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제안을 당부한다"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즐겨 찾는 편안하고 안전한 어린이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오상호기자

## "엑스포 틀 깬다" 보성군, 2022년 보성세계차엑스포 보고회



보성군은 지난 11일 군청소회의실에서 오는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되는 제10회 보성세계차엑스포 중간보고회를 실시했다.  
보고회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김재철 군의회의장, 관내 차 재배 및 차 문화 단체 대표 등 20여 명이 함께했으

며, 2022년 보성세계차엑스포의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엑스포 개최 보성군의 10년 노하우를 녹여낼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주제관 구성, 행사장 조성, 전국차인과 세계차인과 협력방안, 대한민국 차 산업의 세계화 및 미래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논의됐다.  
9회째를 맞이하는 올해에는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엑스포 사전 홍보 행사와 차와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본 행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다향대축제, 소리축제, 군민의 날과 함께 통합축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2년 보성세계차엑스포는 제10회를 기념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기존 엑스포의 울드한 형식을 탈피해 국내외 차 전문가뿐만 아니라 남녀노스 누구나 차를 통해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차밭과 바다, 산을 연계해 드넓은 자연 속에서 차와 만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보성=김덕순기자

## 고흥군, 축산분뇨(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무료검사

고흥군은 지난 해 3월 25일 개정된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속도 기준 준수 의무화가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비 부속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분뇨 부속도 검사는 24일까지 퇴비 부속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것으로 25일부터는 퇴비를 축사(퇴비사) 밖으로 반출할 경우 배출신고 규모에 따라 년 1~2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속도 검사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고흥군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검사 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축산분뇨 부속도 검사는 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 무료로 실시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